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족구성원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현황과 의식 연구

황진영*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한 다문화 가족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둘째, 다문화 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셋째,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첫째,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은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가 컸다. 둘째, 인구통계학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이중언어와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연령이 높을수록, 강사나 교사직에 있는 고학력 다문화 가족구성원일수록 다문화 정책을 수립할 때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권(language right)의 존중을 위해, 시민들의 다문화적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이중언어 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가져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가족구성원, 바람직한 사회 통합, 다문화적 이중언어 역량, 언어권(language right)

* 황진영(E-mail: jyh@kwu.ac.kr)

학위취득대학: 전남대학교 현직: 광주여자대학교 마음나눔교육부 교수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아울러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전남대, 2012)”를 바탕으로 심화 연구하여 집필되었음.

논문접수일 : 2015년 5월 17일, 논문수정일 : 2015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20일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Recognition about Bilingual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Hwang, Jin-young

<Abstract>

I investigated three areas through this study to look into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bilingual education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ey are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bilingual edu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those about educational environment of multicultural community, and those about educational policy for multicultural community. I came to three conclusions by analysis. First,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have open and receptive attitude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y have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bilingual educational programs. Second, in the light of demography, women rather than men, those younger, those lower educated, those having shorter residence period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s bilingual and multicultural society. Third,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who are older or higher educated think that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opinions need to be reflected in multicultural policy making. This analysis shows that bilingual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qualitatively and enhanced for desirable social integration, respect of language right and enhancement of citizens' multicultural bilingual capabilities.

[key words] *bilingual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desirable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 bilingual capabilities, language right*

I.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 비율이 총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에는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법무부 정보분석팀 2009). 특히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증가와 국내 출산율의 감소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김이선 2011).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가 거부할 수 없는 사회 변동의 큰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어진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준비를 요구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면서 자녀들의 언어 장애와 정체성의 혼란 등이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선 다양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들이 필요하다(노충래·홍진주 2006; 박미단 2009).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전국 171개 이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정환경은 아동의 언어습득과 발달을 위한 학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맺게 되는 양육자와의 관계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이자 동시에 가장 밀접한 관계이다. 부모와의 언어 상호작용에 있어 주된 양육자와의 언어,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언어 습득 환경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에서는 영

유아 시기 자녀에게 필요한 한국어 입력 양이 일반 가정에 비해 적으므로, 모계 또는 부계 언어와 문화(한국어와 외국어) 모두를 최대한 노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중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중언어는 언어뿐 아니라 문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통합의 요인이다(Rumbaur 1994; Soro 2002).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 언어교육,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 관련 정책 연구로 김갑성(2006), 홍영숙(2007), 조선경(2007), 오은순·강창동 외(2007), 오은순·이혜원 외(2009), 박성혁·성상환(2008), 이재분(2008), 강휘원(2009), 권순희·이혜진(2009), 윤인진(2009), 전은주(2009), 정혜영(2009), 박기욱(2010), 박혜림(2010), 송현정·양정실 외(2010)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사하던 언어 대신 한국어를 단기에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었다. 언어 소통의 문제는 한국어로 사회에서 생활해야 할 자녀 양육의 큰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언어 교육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정책 실행의 중심은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은 가능한 한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책이나 개입이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책의 시행 결과와 문제에 대한 시각을 살펴봐야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한 다문화 가족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둘째, 다문화 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셋째,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이 이중언어와 다문화 사회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는 가치, 태도, 규범 및 행동양식 등을 일컫는 말이다. 즉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는 가치, 태도, 규범 및 행동양식 등을 차별과 편견 없이 평등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민자들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사회통합과 개인의 언어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해선 '다문화주의' 정책과 '이중언어'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기의 다문화 가정 아동 양육에 있어 외국계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주변의 교육 환경이 한국어 교육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정책적 차원의 이중언어 보육 및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외국계 부모와 한국어로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아동은 부모 어느 쪽으로부터도 풍

부하고 정확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해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성 등 모든 방면에서 발달 부진을 보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원진숙 2009).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교육은 외국계 부모 존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녀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장차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중언어 교육은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영순 2007). 첫째, 다민족 국가에서 국가 표준언어를 익힐 때까지 학습자들에게 모국어를 가지고 교육하고, 학습자가 제2언어인 국가 표준어를 익히면 국가 표준어로 교육 시킨다. 즉 소수 모국어 사용자에게 국가 표준어를 익힐 때까지 과도기적 이중언어를 시행하는 교육 정책(transitional bilingualism)이다. 둘째, 소수의 모국어를 보호하고 그들의 언어를 계속 보존시키기 위한 보존적 이중 언어 교육 정책(maintenance bilingualism)이다. 셋째, 그 국가의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다른 언어 하나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언어 능력 첨가적 이중 언어 교육 정책(additive bilingualism)이다.

과거에는 이민자들이 그 국가 사회 주류 집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적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 방법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발생해 소수민족을 인정하고 그들의 언어를 보호해주는 보존적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언어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많은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첨가적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내의 국제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중 언어 사용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단일 언어, 단일 민족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사회여서 상당수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제학교를 다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제외하고, 정규 한국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는 경우 특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중 아이의 숙제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21.2%이고 그 이유의 44%가 한국어를 제대로 몰라서였다(오성배 2008). 이러한 문제로부터 유발되는 아이 양육과 가정 소통의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더 나아가 미래 한국 사회의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의 통합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도와 태도, 다문화 사회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도와 태도,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를 기반으로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이중언어 교육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정책 실행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다문화 가족구성원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것이다. 모집단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으로 2010년 7월 5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설문 문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대일 면접 설문도 필요에 따라 병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설문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설문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 다문화 가족구성원 설문지 구성척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는 크게 1)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2) 다문화 사회

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3)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로 대분류하고 1)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정도를 살피고자 하였고, 2)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육환경에 대해 살피고자 하였으며, 3)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육 정책에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와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지원 정책 및 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위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설문 척도는 Likert 6점¹⁾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고 응답은 ‘6: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3: 약간 아니다, 2: 아니다, 1: 전혀 아니다’로 응답의 평균값이 낮을수록 ‘강한 부정 의사’를 나타내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강한 긍정 의사’를 나타낸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① 다문화 사회의 인식과 태도($\alpha = 0.769$), ② 다문화 가족구성원 내 이중언어·문화 이해($\alpha = 0.773$), ③ 이중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alpha = 0.720$), ④ 한국 교육환경 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걱정($\alpha = 0.775$), ⑤ 한국 교육환경 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문화교육($\alpha = 0.726$), ⑥ 한국의 다문화 사회 관련 교육환경($\alpha = 0.799$)과 같은 하위영역을 얻었다. 모든 하위영역의 신뢰도가 0.7 이상으로 높게 나와 본 설문조사 설문문항은 신뢰성 있는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리커트 5점 척도는 답변의 경향이 중간점(보통)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답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 다문화 가족 설문지 구성 척도

차원	하위영역	설문척도
I.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① 다문화 사회의 인식과 태도($\alpha = 0.769$)	다문화 사회의 경쟁력,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 다문화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도
	② 다문화 가족구성원 내 이중언어·문화 이해($\alpha = 0.773$)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교육, 배우자 간 타언어·문화 학습, 배우자 측 가족들의 타언어·문화 이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 배려
	③ 이중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alpha = 0.720$)	타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 이중언어 구사능력에 따른 사회적 성공,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언어·문화 학습,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 언어·문화 학습, 이중언어 구사능력에 대한 인식도, 이중언어 구사자의 사고력 및 다문화적 우수성
II. 다문화 사회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④ 한국 교육환경 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걱정($\alpha = 0.775$)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부적응, 다문화 가정 자녀의 외모/피부색 차이
	⑤ 한국 교육환경 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문화교육($\alpha = 0.726$)	모성 인정적 언어·문화교육, 성인지적 언어·문화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에 대한 태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 해결책
	⑥ 한국의 다문화 사회 관련 교육환경($\alpha = 0.799$)	주된 교육환경의 언어·문화습득, 다문화 사회 일반학생들의 혜택, 한국사회의 동화주의적 통합교육,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혜택, 반편견 교육 교사, 다문화 사회 지역 교육지원청의 역할, 한국의 다문화 교육 필요성
III.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정부와 지역사회의 다문화 지원 정책 인지, 다문화 교육정책 수립 시 수요자의 의견 반영, 다문화 사회 통합 프로그램

3. 표본의 특징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들의 사회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표2>와 <표3>과 같다.

<표2>는 다문화 가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설명한다. 성별은 여성이 83.9%, 남성이 16.1%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30대(38%), 20대(37%), 40대 이상(25%) 순이었고, 출신국은 베트남, 중국,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몽골, 캄보디아, 캐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37.7%로 가장 많았고, 대졸 32.5%, 중졸 16.3%, 초졸 7.1%, 대학원졸 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의 학력에 따른 교육 수준 격차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다문화 사회의 국가 정책 지원 시 학력에 따른 수준별 단계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은 전업주부 46.0%, 강사/교사직 15.2%, 관리/사무직 10.4%, 무직 10%, 기타 18.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2년 이내가 26.8%로 가장 많았고, 2~4년(25%), 8년 이상(24.1%), 4~6년(13.2%), 6~8년(10.9%) 순이었다. 응답자 중 70.9%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학 자녀는 초등학교 58%, 중학생 22%, 고등학생 12%, 대학생 4% 순이었다.

<표2> 다문화 가족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자	214	83.9
	남자	41	16.1
연령대	20대	94	37.3
	30대	96	38.1
	40대 이상	62	24.6
출신국	대한민국	42	16.4
	중국	58	22.7
	베트남	67	26.2
	필리핀	27	10.5
	기타	62	24.2
학력 (공교육 수준)	초졸	18	7.1
	중졸	41	16.3
	고졸	95	37.7
	대졸	82	32.5
	대학원졸	16	6.3
직업	관리/사무직	26	10.4
	강사/교사직	38	15.2
	무직	25	10.0
	전업주부	115	46.0
	기타	46	18.4
한국 거주기간	2년 이내	59	26.8
	2~4년	55	25.0
	4~6년	29	13.2
	6~8년	24	10.9
	8년 이상	53	24.1
자녀유무	있다	175	70.9
	없다	72	29.1
자녀의 학령기	미취학	116	69.9
	취학	50	30.1

<표3>은 다문화 가족 응답자의 언어·문화 양상과 관련된 정보이다. 배우자 가족들의 내 언어·문화 수용 정도에서는 ‘수용한다’와 ‘매우 잘 수용한다’가 75.1%를 차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수용하지 않음’과 ‘절대 수용하지 않음’도 각각 19.7%와 5.2%로 나타나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한 열린 포용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은 여전히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나라말 실력에서는 보통 이상이 83.1%, ‘못하는 편’과 ‘전혀 못 함’이 16.9%였다. 배우자와 자녀 간 사용언어로는 ‘배우자의 언어(59.1%)’, ‘모국어+배우

자의 언어(24.7%)', '모국어(11.5%)', '모국어+ 배우자의 언어+ 제3외국어(4.7%)'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배우자의 언어는 한국 거주 외국계 이주민 응답자가 다수(84%)이므로 한국어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가족 간 대화 시 이중언어와 다중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24.7%와 4.7%에는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한 경우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에는 아직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외국어를 섞어 쓰는 경우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자(89.6%)가 향후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하여 다문화 가족 스스로 다언어환경을 심분 활용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 실현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표3> 다문화 가족의 언어·문화 양상

구분		빈도	퍼센트
배우자 가족들의 내 언어문화 수용정도	매우 잘 수용	52	20.9
	수용	135	54.2
	수용하지 않음	49	19.7
절대 수용하지 않음		13	5.2
배우자 나라말 실 력	매우 잘함	32	12.9
	잘하는 편임	63	25.4
	보통	111	44.8
	못하는 편임	33	13.3
배우자와 자녀 간 사용언어	전혀 못 함	9	3.6
	모국어	27	11.5
	배우자 언어	139	59.1
	모국어+배우자 언어	58	24.7
	모국어+배우자 언어+ 제3외국어	11	4.7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계획	참여하겠음	225	89.6
	계획 없음	6	2.4
	잘 모름	20	8.0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다문화 가족구성원의 한국 다문화 사회 이중언어 교육 에 관한현황과 의식

<표 4>는 한국 다문화 사회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의식과 현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1)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2) '다문화 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3)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1)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에서는 이중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의 평균이 '5.21점/6점'으로 '다문화 사회의 인식과 태도(4.82점)²⁾'와 '다문화 가족구성원 내 이중언어·문화 교육 이해(4.75점/6점)³⁾'에 비해 높았다. 즉,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은 언어·문화적으로 문제가 있는 다른 다문화

2) 다문화 사회는 우리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5.08점), 내 지역사회 사람들은 한국 언어·문화와 다른 이주민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4.59점), 나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다.(4.77점), 나는 자녀의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4.83점)

3) 내 자녀는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도록 가정에서 한국어와 함께 부/모의 외국 언어·문화를 배운다.(4.83점), 내 배우자는 내 모국 언어·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려고 노력한다.(4.74점), 내 배우자 측 가족들은 내 모국 언어·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4.51점), 내 가족과 친족들은 내 자녀가 이중언어를 익히는 것에 동의한다.(4.92점)

가족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4.92점), 내 자녀가 이중언어 구사자가 된다면 취업이나 사회적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5.33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한국 언어·문화를 배워야 한다(5.40),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배우자의 언어·문화를 배워야 한다.(5.20), 현대 사회에서는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원이다(5.28), 이중언어 구사자가 단일언어 구사자보다 문화적 포용력이나 사고력에서 더 우세하다(5.16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두 번째, 2) ‘다문화 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관련 교육환경(5.19점/6점)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문화교육(4.21점/6점)⁵⁾,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걱정(3.98점/6점)⁶⁾ 순으로

- 4) 내 자녀는 나 또는 내 배우자의 언어·문화보다 한국 언어·문화 습득에 열중하기 바란다(4.84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학생이 늘어나면, 일반 학생들의 문화적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4.78점), 내 자녀가 일반 학생과 똑같은 학급/학교에서 한국어로 공부하기를 바란다(5.24점), 다문화 사회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내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5.22점), 내 자녀의 교사는 언어·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가르치기를 바란다(5.35점), 지역 교육지원청은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교육 제도를 마련하기를 바란다(5.45점), 한국 사회에는 다문화 가족구성원, 교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5.45점).
- 5) 내 자녀에게 엄마 나라의 말을 먼저 가르치겠다(3.79점), 내 자녀에게 부모의 양쪽 언어·문화를 가르치겠다(4.81점), 내 자녀는 단일 언어권 자녀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날 것이다(4.73점), 내 자녀가 한국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교육시킬 의향이 있다(3.60점)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언어적응에 대한 걱정은 낮고,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다문화 사회 관련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다문화 이해교육과 교사 교육 등을 통해 반편견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⁷⁾.

세 번째, 3)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은 다문화 사회 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5.22점/6점), 다문화 가족구성원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시,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5.05점/6점), 정부와 지역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65점/6점). 즉,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은 다문화 사회 또는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는 높지만,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나 준비내용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인다. 수요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제공을 외국어로 통번역해주는 서비스, 다중언어로 된 홍보물 또는 안내지 배포 등의 다국어 지원 서비스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 6) 내 자녀가 한국말 외 나 또는 배우자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할까 걱정된다(4.31점), 내 자녀가 언어 문제로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된다(3.89점), 내 자녀가 외모나 피부색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된다(3.71점)
- 7)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다면 다른 나라에서 교육시킬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서 3.60점이라는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한국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탓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다문화 정책이나 이중언어 교육 정책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아젠다가 수립되면, 국민으로부터의 여론 수렴과 국정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 다문화 가족구성원의 한국 다문화 사회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현황과 의식 조사 결과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I.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다문화 사회의 인식과 태도	4.82	0.83
	다문화가족구성원 내 이중언어문화교육 이해	4.75	0.93
	이중언어문화교육에 대한 태도	5.21	0.62
II. 다문화 사회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걱정	3.98	1.4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문화 교육	4.21	1.08
	한국의 다문화 사회 관련 교육환경	5.19	0.64
III.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다문화 사회를 위한 준비 인식	4.65	1.17
	교육정책 수립 시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5.05	1.18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할 의사	5.22	0.93

2.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시켰다. ‘다문화사회의 인식과 태도’의 경우 성별, 연령, 출신국, 학력, 거주기간이 답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동남아 출신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다문화 사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표 5>. 이와 같은 결과에서 학력이 낮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동남아 출신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교육이나 자존감 상승 교육 등을 실시한다든가, 소수 이주민들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자조모임 결성 등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응집된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다문화사회의 인식과 태도 &
인구통계학적 요인

구분	요인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여자	4.88	0.80	2.240	0.026*
	남자	4.57	0.88		
연령대	20대	5.02a	0.72	4.908	0.008**
	30대	4.71b	0.85		
	40대 이상	4.66b	0.91		
출신국	대한민국	4.49b	0.86	9.956	0.001**
	중국	5.00a	0.77		
	베트남	5.14a	0.74		
	필리핀	4.94a	0.50		
	기타	4.38b	0.89		
학력 (공교육 수준)	초졸	5.12a	1.09	4.768	0.001**
	중졸	5.09a	0.66		
	고졸	4.88ab	0.78		
	대졸	4.61bc	0.85		
	대학원졸	4.32c	0.73		
한국 거주기간	2년 이내	5.08a	0.73	4.955	0.001**
	2~4년	4.97a	0.80		
	4~6년	4.85a	0.88		
	6~8년	4.59b	0.86		
	8년 이상	4.48b	0.81		

‘다문화 가족구성원 내 이중언어·문화 교육 이해’에 대한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의 언어 및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우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재미있는 점은 태국, 일본, 몽골 출신의 다문화 가족구성원은 한국 사회에 동화되려는 의지로 인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중언어·문화 교육에 관한 의지가 다른 출신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다문화 가족구성원 내
이중언어문화교육 이해 & 인구통계학적
요인

구분	요인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여자	4.77	0.91	0.188	0.851
	남자	4.74	0.83		
연령대	20대	4.92a	0.83	3.372	0.036*
	30대	4.71ab	0.91		
	40대 이상	4.53b	1.06		
출신국	대한민국	4.81a	0.72	4.093	0.003**
	중국	4.92a	1.02		
	베트남	4.90a	0.81		
	필리핀	4.70a	0.96		
	기타	4.32b	0.99		
학력 (공교육 수준)	초졸	4.64	1.06	0.509	0.730
	중졸	4.90	0.86		
	고졸	4.75	0.94		
	대졸	4.67	0.94		
	대학원졸	4.67	0.88		
한국 거주기간	2년 이내	5.06a	0.83	4.569	0.001**
	2~4년	4.81ab	0.92		
	4~6년	4.81ab	0.82		
	6~8년	4.20c	1.08		
	8년 이상	4.60b	0.89		

‘이중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보이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걱정’ 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출신국, 학력, 거주기간이 답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의 한국 교육환경에의 부적응을 걱정하고 있었다<표 7>. 이러한 결과는 검은 머리 색과 피부색이 비슷한 중국계 이주민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서, 외모 면에서 눈에 띄는 베트남계

와 필리핀계 이주민들이 자녀들의 적응에 더 걱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에의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걱정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좀 더 빠르고 순조롭게 한국 사회에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7>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걱정 & 인구통계학적 요인

구분	요인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여자	4.08	1.38	2.478	0.014*
	남자	3.50	1.39		
연령대	20대	4.61a	1.26	21.970	0.001**
	30대	3.78b	1.27		
	40대 이상	3.25c	1.39		
출신국	대한민국	3.60b	1.36	5.585	0.001**
	중국	3.62b	1.53		
	베트남	4.60a	1.33		
	필리핀	4.04b	0.91		
	기타	3.81b	1.33		
학력 (공교육 수준)	초졸	4.41a	1.49	3.975	0.004**
	중졸	4.59a	1.35		
	고졸	3.93b	1.41		
	대졸	3.75b	1.31		
	대학원졸	3.33c	1.33		
한국 거주기간	2년 이내	4.74a	1.19	9.644	0.001**
	2~4년	4.21b	1.35		
	4~6년	4.19b	1.15		
	6~8년	3.76bc	1.21		
	8년 이상	3.32c	1.25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문화교육’ 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에게 엄마 나라의 말 먼저 가르치겠다.” “부모 양쪽의 언어·문화를 가르치겠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단일언어 자녀보다 언어능력에서 뛰어날 것이다.”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화교육 & 인구통계학적 요인

구분	요인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여자	4.22	1.08	0.176	0.860
	남자	4.25	0.97		
연령대	20대	4.32	1.01	2.794	0.063
	30대	4.26	0.95		
	40대 이상	3.93	1.32		
출신국	대한민국	4.27	0.92	0.755	0.550
	중국	4.30	1.27		
	베트남	4.24	0.97		
	필리핀	3.96	1.05		
	기타	4.06	1.12		
학력 (공교육 수준)	초졸	4.36	1.30	0.509	0.730
	중졸	4.35	1.13		
	고졸	4.08	1.02		
	대졸	4.20	1.07		
	대학원졸	4.39	1.1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내	4.47a	1.07	2.641	0.035*
	2~4년	4.35a	0.97		
	4~6년	4.28a	0.94		
	6~8년	3.90b	1.03		
	8년 이상	3.94b	1.14		

‘한국의 다문화 사회 관련 교육환경’은 짧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 사회의 통합교육에 거는 기대나, 다문화 사회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한국의 다문화사회 관련 교육환경 & 인구통계학적 요인

구분	요인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여자	5.24	0.56	1.972	0.050
	남자	5.05	0.69		
연령대	20대	5.31a	0.50	4.388	0.013*
	30대	5.17ab	0.53		
	40대 이상	5.01b	0.91		
출신국	대한민국	5.07b	0.63	2.208	0.069
	중국	5.18ab	0.82		
	베트남	5.36a	0.48		
	필리핀	5.16ab	0.51		
	기타	5.05b	0.64		
학력 (공교육 수준)	초졸	5.49a	0.50	3.356	0.011*
	중졸	5.33a	0.56		
	고졸	5.15a	0.73		
	대졸	5.15a	0.57		
	대학원졸	4.79b	0.61		
한국 거주기간	2년 이내	5.41a	0.43	3.844	0.005**
	2~4년	5.29a	0.54		
	4~6년	5.12b	0.63		
	6~8년	5.22a	0.50		
	8년 이상	5.03b	0.60		

정부와 지역사회가 다문화 가족구성원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시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차이분석 결과, 연령, 출신국,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30대와 40대 이상의 다문화 가족구성원들, 필리핀> 중국> 대한민국 순, 그리고 강사/교사직에 있는 다문화 가족구성원일수록 다문화 정책 수립시에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더 긍정적으로 답했다<표 10>.

<표 10> 교육정책 수립 시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 인구통계학적 요인

구분	요인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여자	5.06	1.21	0.338	0.736
	남자	5.12	0.82		
연령대	20대	4.76b	1.48	4.160	0.017*
	30대	5.22a	0.90		
	40대 이상	5.20a	1.01		
출신국	대한민국	5.20a	0.87	7.778	0.001**
	중국	5.37a	0.92		
	베트남	4.42b	1.64		
	필리핀	5.50a	0.58		
	기타	5.18a	0.84		
학력 (공교육 수준)	초졸	4.72	1.64	1.427	0.226
	중졸	4.72	1.43		
	고졸	5.10	1.19		
	대졸	5.16	0.97		
	대학원졸	5.25	0.77		
한국 거주기간	2년 이내	4.78	1.60	1.441	0.222
	2~4년	5.18	1.16		
	4~6년	5.00	1.13		
	6~8년	5.13	0.87		
	8년 이상	5.27	0.70		

또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사회 또는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참여할 의사여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40대 이상보다는 2·30대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대한민국 순,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표 11>. 따라서 다문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30대의 젊은 이주여성을 주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1> 다문화사회 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 & 인구통계학적 요인

구분	요인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여자	5.32	0.82	3.120	0.002**
	남자	4.85	1.12		
연령대	20대	5.43a	0.88	7.030	0.001**
	30대	5.22a	0.76		
	40대 이상	4.87b	1.13		
출신국	대한민국	5.05bc	0.89	8.031	0.001**
	중국	5.35ab	0.94		
	베트남	5.64a	0.67		
	필리핀	5.23b	0.59		
	기타	4.78c	1.07		
학력 (공교육 수준)	초졸	5.44ab	1.04	6.063	0.001**
	중졸	5.65a	0.58		
	고졸	5.22ab	0.99		
	대졸	5.09b	0.75		
	대학원졸	4.44c	1.36		
한국 거주기간	2년 이내	5.71a	0.56	8.538	0.001**
	2~4년	5.31b	0.92		
	4~6년	5.17b	0.93		
	6~8년	5.26b	0.75		
	8년 이상	4.78c	0.94		

V. 결론 및 교육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가족구성원의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현황과 의식을 알아보고자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족구성원 257명(여성 214명, 남성 41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한 것으로, 1)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 사회통합, 2) 다문화 사회의 교육환경, 3) 다문화 사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은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하

면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가 컸다. 이러한 의지는 다문화 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낮은 편이었다. 정책 수혜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외국어로 통번역 해주거나 다국어 홍보물 배포 등의 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인구통계학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이중언어와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배우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다문화 사회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문화 사회의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30대의 젊은 이주여성을 주축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령이 높을수록, 강사나 교사직에 있는 고학력 다문화 가족구성원일수록 다문화 정책을 수립할 때 다문화 가족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다문화 사회의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는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정책 준비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킨다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나 집행에서 소수 이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 과제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구성원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향후에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교수, 대학강사, 교장, 장학사, 교사, 다문화 상담가 등의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에 정책 수혜자들만의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계 및 교육계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필자의 향후 연구 과제는 광주 지역 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해보고 도출된 데이터를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 연구의 상관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관계로 연구의 일반화를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정부와 지자체별 정책 요구에 따라 타지방이나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로서 연구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의 정보원을 보다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질문과 조사대상자의 응답결과를 좀 더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방법 이외에 심층면접이나 실험·준실험과 같은 자료수집 방법을 병행하는 복수방법론을 통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중언어 교육 정책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은 소득 수준의 격차, 시민 참여 수준 차이, 빈곤, 도시 범죄, 이민, 소수 민족,

장애 아동,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정책 영역과 얽혀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특히 이민자와 장애우들과 같은 소외 계층을 위한 형평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부가적인 관심과 지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교육의 사회적 배타와 통합의 문제가 시민에 대한 단순한 시혜적 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만 한다는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언어에 대한 권리, 언어권(language right)의 관점에서도 이중언어 교육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회 다수자들은 언어권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언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자들은 언어에 의한 불평등을 겪고 '언어에 의한 차별(linguicism)'을 견디며 살아간다. 개인적 차원에서 언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모어로 인해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한테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언어권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파악한다면 다문화 사회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외의 언어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들의 자녀에게 학교교육에서 그들의 모어에 대해 또는 모어로써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시민들의 다문화적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문화적 차이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다른 언어·문화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여러 언어를 알수록 그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간 지식도 함께 쌓으며, 각국의 사람과 그 문화에 대해 관대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문화 역량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사회 역량이 된다. 소수자의 차이가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고 사회적 관용이 창조적인 문화 생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강휘원, 2009,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국가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pp. 193-223.
- 권순희, 2009,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pp. 57-115.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오성배, 20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열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1권 제3호, pp. 135-163.
- 김이선, 2011,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3-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기옥, 2010,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정책 방안”,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단, 2009, “학령전기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비교”,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혁·성상환, 2008,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교육연구와 실천』 제2권, pp. 19-60.
- 박영순, 2007,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어 교재론』,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 교육연구원.
- 박혜림, 2010, “한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방안”,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정보분석팀, 2009, 『지역별 결혼 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 현황 (2007.7.31현재~2009.6.30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송현정·양정실·이강복, 2010,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정책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오은순·강창동·진의남·김선혜·정진웅·정원영, 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오은순·이혜원·박진용, 2009,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오성배, 2008,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원진숙, 2009,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교육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0호, pp. 158-187.
- 윤인진, 2009, “한국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4집, pp. 65-88.
- 이재분, 2008,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전은주, 2009,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에 관한 비교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pp. 117-150.

- 정혜영, 2009, “다문화 가정의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경, 2007,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연
구: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
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홍영숙, 2007, “다문화 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
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References

- Rumbaur, R. G. 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28 No.108.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748-794.
- Soro, L. D. 2002. "Young bilingual children's perceptions of bilingualism and biliteracy: Altruistic possibilities." 『Bilingual Research Journal』 Vol.26 No.3.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Bilingual Education. 599-619.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 Seon-kyung. 2007. "Study on Special Purpose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s a Focal Point." Doctoral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en University.
- Hong, Young-sook. 2007. "A study on children's educational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implication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Information and Statistic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2009. 『Regional Immigration Status of Marriage-based Immigrants(2007.7.31~2009.6.30) Korea Immigration Service.
- Jeon, Eun-joo. 2009. "Comparative Study in the Korean Teaching-Learning between Multi-Cultural and Ordinary Korean Learner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117-150.
- Jeong, Hye-young. 2009. "A study on the Effici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over the Multi-cultural Famil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Kang, Hee-won. 2009. "Integration and Bilingualism in Canadian Multilingual Society." 『Public policy review』 Vol.23 No.3. National policy lab, ChungAng University. 193-224.
- Kim, Kap-sung. 2006. "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Yoo-jin & Oh, Sung-bae. 2013. "A Qualitative Study of Married Immigrant Mother's Enthusiasm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1 No.3. Korean Education Inquiry, ChungAng University. 135-160.
- Kim, Yi-seon. 2011. 『Policy Paradigm Construction for Transition to Multi-racial, Multi-cultural Society 3 - Policy Suggestion for Enhancement of Social Networking of Marriage-based Immigrant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won, Soon-hee. H. 2009. "Necessity of Bilingual Education and a Policy Sugges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Vol.34.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57-115.
- Lee, Jae-boon. 2008. 『Research on the Re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Education: Interracial Marriage as a Focal Point.』 Korean

-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Oh, Eun-soon, Gang, Chang-dong, Jin Eue-nam, Kim, Sun-hye, Jeong, Jin-woong and Jeong, Won-young. 2007. 『Research on Teaching and Learning Sugges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1)』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Oh, Eun-soon, Lee, Hye-won and Park, Jin-yong. 2009. 『Korean Language Education Suggestions for Multi-cultural Childre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Oh, Seong-bae. 2008. 『A Study on the Mid and Long Term Planning for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Educational Suppor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Park, Hye-rim. 2010. "Research on Bilingual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Park, Ki-ok. 2010. "Policy Plan for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 Park, Mi-dan. 2009. "Comparison of Language Acquisition Development between Pre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General Childre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 welfare, Korea Nazarene University.
- Park, Sung-hyuk and Seong, Sung-hwan. 2008. "Multi-cultural Policy Enforcement Situation in Korea: Research on the Issues and Implementation Analysis."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Vol.2.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Young-soon. 2007. 『Bilingual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Multi-cultural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ong, Hyun-jeong, Yang, Jeong-shil & Lee, Gang-bok. 2010. 『On the Direction of Korean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Won, Jin-sook. 2009. "Language Education Program for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40.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Society. 157-187.
- Yoon, In-jin. 2009. "Evalu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Korea and Its Future Tasks." 『Korean Teaching as a Foreign Language』 Korea Language Institute, Yonsei University. 65-88.